

남원시, 일반산업단지 분양

사매면 월평리 산37-3번지 일원 77만7159㎡ 시 직영 공영개발방식 평균분양가의 74.5%선

남원시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남원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45필지에 대해 분양 및 임대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산업시설용지는 시에서 직영으로 처음 개발한 일반산업단지로서 사매면 월평리 산37-3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77만7159㎡이며, 분양공고는 7월 8일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및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기타 입주시청과 관련한 문의는

남원시청 기업지원과(063-620-6648, 6642)로 문의하면 된다.

이 지역은 남북으로 국도 17호선과 순천완주 고속도로, KTX전라선이 연결되고 동서로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IC가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인프라가 다른 지역 산업단지보다 앞선다는 평가이다.

특히,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방식이 아닌 시 직영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해 조성원가를 현저히 낮추고 내 일반산업단지 평균분양가의

74.5%선이다.

남원시는 이곳에 식료품, 음료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및 컴퓨터 영상통신장비,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토지 분양 가격은 3.3㎡당 32만5000원선이며, 임대가격은 분양가의 10%인 보증금과 분양가의 1.5%인 임대료를 납부하면 되고 기간은 5년으로 연장 가능하다고 한다. 남원시는 초기 입주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분양대금 중 계약금 10%와 3개월 이내 중도금 20% 등 총 30%를 납부하면 토지사용 승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잔금 70%는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특히,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성장추진지역에 포함되어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요건 충족시 설비투자비의 24%, 토지매입비의 40% 등 타지역 대비 10% 정도 국가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남원시는 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1조원의 매출과 3,500여명의 고용 창출 및 인구 유입 효과, 연간 지방세 수입 25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원주 시장은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저렴한 분양가와 뛰어난 교통망을 배경으로 분양과 임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입주기업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남원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45필지에 대해 분양 및 임대한다.

“어두운 밤길, 불안해하지 마세요”

순창군, 안심귀갓길 조성 LED 로고젝터 설치

순창군이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해 순창읍 일원 10곳에 셉테드(CPTED,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기법이 적용된 LED 로고젝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로고젝터는 LED 조명장치에 범죄예방 홍보문구나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다양한 이미지 등을 투영하여 벽이나 도로면에 이미지를 비추는 일종의 빔 프로젝터 장치로, 빛 번짐 우려가 없어 야간에 시각적 메시지 전달 효과가 뛰어나다.

군은 순창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아래, 군·경 합동 현지출장으로 어두운 골목길과 청소년徘徊지역 등 로고젝터 설치 대상지를 사전물색해 우선



설치하는 등 군·경 공조체제도 강화해 나갔다.

이번 로고젝터 설치로 야간에 귀가하는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마음 편히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임실군은 지난 3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안전보안관, 민간에할단, 자율방재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질적 안전무시 7대관행 근절을 나갔다.

고질적 안전무시 7대관행이란 일상생활 속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불법주·정차 금지 △비상구 폐쇄·물건적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구명조끼 착용 △안전띠 착용 △건실현장 보호구 착용 △과속·과적운전 금지 이다. 안전보안관 대표의 선서를 통해 안전한 임실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임실시장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무시 관행 중 불법주·정차 4개 과제인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등을 집중 홍보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적극 창업 지원

7월부터 49세로 확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순창군이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대상자 나이를 만 49세까지 높인다.

군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대상 연령을 올 상반기까지 만 39세까지로 한정하던 것을 하반기부터 만 49세까지로 높여 창업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욕구 충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군이 산업화 기반이 취약한 지역적 특성으로 취업보다는 창업을 위주로 삶의 돌파구를 찾는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역 내 창업을 통해 순창군의 경제 허리를 담당하며 미래순창을 이끌 든든한 뿌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존 만 39세로 한정하면 대상 인구가 전체 군 인구에 18%정도 밖에 되지 않아 혜택을 보는 군민들이 한정돼 이를 개선코자 군이 올 하반기부터 대상자 모집에 연령 범위를 넓혔다.

군은 기존 30대에서 40대로 범위를 확대하며, 40대가 갖고 있는 사회적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창업 아이디어가 쏟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재취업이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40대 취업예정자들이 많은 만큼 이번 지원범위 확대가 군 경제활성화에 화수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1월 29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군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농촌체험관광과 연계되는 6차 산업 등 지역내 지속가능하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단순유통이나 숙박업, 프랜차이즈 등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남원시 보건소 방문 신청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영유아의 발달장애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만6세 미만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 50% 이하인자 중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자로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 50%이하(차상위계층 제외)는 최대 20만원이며, 관할 보건소 모유수유실(063-620-7942)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를 가지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수검률 제고를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사례관리담당 실무자 지역복지현장 솔루션 워크숍

임실군은 4일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민·관 사례관리담당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복지현장 솔루션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진행됐다.

지역의 복지이슈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민·관의 사례관리 실무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향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은 군과 보건의원, 12개 읍면의 사례관리 담당자와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 기관의 사례관리 실무자들이 참석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화 관주북구중독관리센터 상임팀장으로부터 중독 및 정신질환 사례관리 전문교육을 듣고 지역의 사례 케이스에 대한 솔루션 및 토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중독과 정신질환을 비롯한 알콜리즘 사례 등에 민·관이 한층 더 협력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다짐했다.

군은 올해 초 공공부문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민·관 사례관리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읍·면 지역에서 발굴한 복합적 욕구를 가진 고난도 사례 요청 시 각 기관 등이 통합사례회의를 갖고 이들을 돕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농작물 보호 앞장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총 150마리 포획

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군은 4일 종합상황실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현재 군은 지난달 8일부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적인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현재 군은 지난달 8일부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중이며,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인 포획 활동 지원을 위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멧돼지와 고라니에 마리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및 이상 징후 발견 시 피해신고 등 피해방지단 역할 및 임무에 대해서 교육도 병행했다.

임실군 수렵연합회 임계택 회장은 “농작물 피해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활동이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있다”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안전과 총기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